

기고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대하는 우리의 책무

잃어버린 문화재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만 화재로 사찰이...

지난번 전남 곡성군 설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도중 산불과 인접한...

바로 산을 산불로부터 지키고 관리하는 산주와 산림분야 공무원들이다.

봄철에는 특히 산불이 많이 발생

하는 계절이다.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논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이 잦은 시기이고...

이러한 대형산불은 귀중한 산림 자원의 소실은 물론 주택과 각종 생산시설의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준다.

2005년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양양·낙산사 산불이 그 대표적인 예다. 당시 산불로 인하여 보물 제 479호인 낙산사 동종 등 주요문화재가 소실되는 쓰라린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

간간 기상 여건과 사회패턴을 볼 때 올해 산불도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다. 건조특보일수는 지난해 35일인데 반해 올해는 50일이나 됐고, 강수량은 114.7mm인데 반해 38.8mm에 불과했다.

코로나19로 밀폐된 공간을 벗어나 숲에서 그동안 억눌린 답답한 가슴을 펴고 마음껏 숨을 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산림청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4월 18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00ha 이상의 대형산불 75%가 이 기간 중에 발생되고 있다. 10년 평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산불

은 154건, 산림피해에는 581ha로 연간 건수 대비 33%, 피해면적은 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림당국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산림당국은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입산자 관리 및 농산촌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지상 산불진화대 2만1천여명과 공중진화 헬기 174대를 전진 배치하며 그야말로 산불과의 사투를 벌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불의 68%가 입산자의 실화 등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산림청과 지자체 등 산림당국의 행정력만으로 봄철 대형산불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 모

두가 참여해야 한다.

우리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국민 81.4%가 산림을 찾아 휴양과 휴식을 즐기는 시대다. 그러나 산불예방에는 너와 내가,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없이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내 주변에 작은 불씨가 있는지, 산불위험 요소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산림청이나 지자체 산림부서에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모든 산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듯이 산불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다. 우리가 누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보배 같은 숲 산불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실천하자.

첫째 입산 시 인화물질 휴대 금지이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집에서 산 입구에서도 주머니와 등산 배낭을 점검하여 인화물질이 있으면 아예 내려놓고 가져다.

둘째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금지이다. 농사를 수월하게 짓기 위해 논·밭두렁을 태우면 해충보다는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이 감소한다. 또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무단 소각은 막대한 미세먼지를 유발하면서 산불로 이어진 다. 농사를 쉽게 지으려 설마 하는

생각으로 산 근처에서 소각하여 산불이 발생하면 평생 범죄자로 남을 수 있다.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상복구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

셋째는 화목난방기의 타고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려야 한다. 풍광이 좋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차박 등을 즐기는 캠핑객이 늘고 있고, 캠핑의 묘미는 모닥불 피워놓고 감상하는 이른바 불멍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산불을 불러온다는 사실이다. 봄철에는 산림 내는 물론이고 근처에서도 모닥불을 피우는 캠핑은 자제해야 한다.

불탄 숲이 다시 산림으로 돌아오는 데는 1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찰 화재로 문화재가 소실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스님의 말이 무거운 짐으로 남는다.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일도 재미가 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온 국민이 정부를 믿고 참여한 우리 K-방역이 으뜸이라고 세계 언론이 평가하듯 봄철 대형산불 예방에 다 함께 참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일 것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emergency and service numbers.

Advertisement for Honam Newspaper,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행락철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 필요

급년은 봄 기온이 예년보다 크게 상승하고 봄꽃 개화시기도 앞당겨져 그동안 코로나 19로 집 안에서만 억눌려 생활하던 사람들이 따뜻한 봄기운을 맞으며 집 밖으로 나오면서 전국 유원지나 공원, 관광지에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봄철 행락철만 되면 어김없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오토바이나 고

급 외제차 등 동호회 활동이 늘어나면서 관광지 등 폐지 다니면서 굉음을 내고 교통법규 위반 등 난폭운전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 주민들과 일반 운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다수 운전자들은 차량 불법 개조없이 교통법규를 지키는 순수한 동호회 회원들이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굉음을 내기 위해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일부 구간을 고속으로 반복 주

행하는 등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보성군 회천면 울포지역은 전국 최대 녹차단지과 수려한 해변, 녹차탕, 캠핑장, 수상물위판장 등이 있어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도 최근 몇 년 전부터 주말이면 삼삼오오 다니는 오토바이 족들의 위험운전과 굉음 때문에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회천면 북재 정상에서 밟고 개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은 S자로 굽은 도로 구조 때문에 전국의 오토바이 동호회원들이 선호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경찰 단속 이전에 코로나 19로 인해 그동안 억눌려 생활한 국민들이 모처럼 아름다운 유원지나 관광지 등 도로 이용시 일부 운전자들의 위험, 난폭 운전으로 인해 불안해 하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숙한 교통문화를 보여줘야 할 때

이재필/보성경찰서 회천파출소경위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